

불란서 革命期 衣生活에 나타난 特性考察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lothing Behavior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조 교 수 김 인 숙

Dept. of Clothing, Kyung Hee University

Assistant Prof.; In Sook Kim

<目 次>

I. 序 論

II. 本 論

1. 政治的 自我表現으로서의 衣裳
2. 男性服의 單純·機能化 현상
3. Uniform 偏向性

4. 理想郷의 表象으로서의 衣裳

5. 軍服의 影響

6. 倫理的 頹廢性

III. 結論과 提言

參考文獻

<Abstract>

French Revolution, while re-establishing the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had also changed the cultural conditions of French life and manners. Clothing, as with other features of daily life, had some characteristic changes, which this article tried to specify and relate with the social conditions. Those specific changes pointed out as typical and dicussed herewith are:

1. Clothing manipulated as a political identity kit.
2. Simplification of colors and forms of men's costume.
3. Tendency toward uniformity.
4. Clothing as the symbol of political utopia.
5. The attraction of military uniform.
6. Moral decadence.

I. 序 論

天文學的으로 星座의 운행, 혹은 그 週期를 나타내는 revolution 이란 어휘는 원래 政權의 週期的 交替를 의미하는, 歷史의 자연적 循環, 혹은 舊秩序에로의 回歸라는 뜻을 지닌 비교적 온건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이 말은 急進

새 出發, 또는 '歷史의 미친 靈感' 등으로 형용되는 극히 突發의 방법에 의해 나타나는 새로운 政治秩序를 의미하게 되었다. 즉, 혁명이란 舊體制에의 도전이며 나아가서는 舊制度和 근본적으로

相異한 새 질서의 확립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政府組織의 근본적 變化를 위한 試圖'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成功的 혁명은 시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부조직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정부조직의 변화와 아울러 諸분야의 사회활동-경제·사회·문화의 舊조직의 解體와 새조직의 形成을 가져온 혁명을 일컫는다.

불란서 혁명은 位階秩序에 의존한 絶對王政에 강력한 타격을 가해, 새로운 近代市民社會를 이룩할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 農奴制, guild 등의 封建의 특성을 소멸시켰다. 그러나 이 혁명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理想에 머물렀던 啓

蒙정신이 현실적으로 정치·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점에 있으며 급진적 혁명과정에서 파생되었던 여러가지 否定的 측면에서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萬人의 自由·平等이 현실적으로 受容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가장 理想的인 人間存在의 양상임을 널리 公布한 데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戰鬪의 民族主義·急進의 변화를 위한 非常수단으로 사용되었던 恐怖에 의존한 정치, 극단적 黑白論理의 強要 등이 빚어낸 숨막히는 生存분위기, 來日에 대한 不安, 社會成員 相互間의 不信으로 인하여 歷史形成에 소극적·피동적 입장에 섰던 多數의 사람들이 浮動하는 不確實性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도 중요한 時代的 與件의 하나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秩序의 導入' 혹은 '새로운 理念의 現實化'라는 課題는 필연적으로 社會·文化的 諸要素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능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인위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변화한 他與件과 더불어 衣生活 또한 적지않은 변화를 일으켰음을 아래와 같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7年頃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빠져 나온 멍에 衣裳·禮節·形式에 얽매어 있었다. 200年의 세월이 흐르다해도 이 40年 동안(1770s~1810s)에 일어났던 變化보다 더 큰 變化를 가져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1815)은 下人들이나 입는 그런 옷을 그때에는 紳士라면 언제, 어디서나 입었던 것이다."²⁾

또한 James Laver는 1778年版의 Fashion誌, *La Galerie des Modes*와 1975年版의 *Gallery of Fashion*의 두 插畫를 나란히 게재하고 두 插畫에 나타난 mode의 判異함에 注意를 환기시키면서 이것이 무엇때문인지 추측해보라고 하고있다.³⁾

本稿에서는 西洋服飾史 展開의 主무대인 불란서에서 일어난 不란서 혁명이란 짧은 或은 大 歷史的 轉換期에 나타난 衣生活變化의 特性을 考察하고 이러한 특성과 社會背景과의 관련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試圖는 첫째, 急進의 變化가 불러올 수 있는 衣生活의 變化와, 둘째, 社會的 混亂期에 나타날 수 있는 衣生活에 있어서의 混沌의 형태를 파악하고 一般化하는데 작은 몫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本 論

本稿에서는 不란서 革命期에 나타난 衣生活의 특징을 1. 政治的 自我(political-self)의 表現으로서의 衣裳, 2. 男性服의 單純化 현상, 3. Uniform 愛好性向, 4. 政治的 理想鄉의 表象으로서의 衣裳, 5. 軍服의 影響, 6. 頹廢의 倫理性으로 指摘하고 各項目을 나누어 考察하고자 한다.

1. 政治的 自我 表現으로서의 衣裳

1789년 三部會가 소집되었을 때, 市民階級을 代表하는 第三身分은 黑色외투, 黑色 culottes에 장식줄도 깎털도 달지않은 silk-hat에 粉뿌린 假髮차림으로 登院하였다. 이점은 의상은 同年 5月, 儀典長 Dreux Brégé가 1614년에 基調된 身分別服飾에 대한 法令에 의거하여 第三身分의 복장으로 定한 것이었다. 이 黑衣는 기타 與件과 함께 국민들의 불만의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代表가 그들에게 辱을 상징하는 이 服飾을 取하고 나타난데 對해 자랑스러워하기 보다는 이 소박한 점은 의상과 金·銀·깃털장식에 刺繡로 번쩍이는 貴族들의 의상과의 對照를 감정 깊게 바라보고 이 視覺的 對照야말로 社會構造的 不公平이 빚어낸 階級差의 深淵을 表徵한다고 判讀하였던 것이다. 혁명이 進行되면서 國民議會는 이 身分別 服飾에 對한 法令을 廢止하였다.

革命初期의 理想主義를 標榜하며 거리의 行進이나 煽動에 참가하면서 순식간에 第三身分에서 '市民'의 위치로 끌어올려진 勞働者·農民·市民들은 이 새롭고 경이로운 위치를 象徵하기위해 새로운 style, 즉 上部로부터 強要당하지 않은 자자기자신들의 옷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것을 水夫나 農夫들이 數世紀에 걸쳐 애용하던 통 넓은 바지, 짧은 조끼, 粉뿌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머리形, 나막신과 Carmagnol에서 발견했으며, 이 服飾形態에다가 종래에 이 계급에 부과되었던 억압에 對한 혁명적 鬪爭정신의 意味를 불어넣어 革命鬪士의 상징으로 借用하기 시작했다. 이 sans-culottes복장은 1792年 革命慶祝日에 당시의 유명한 俳優였던 Chenard가 旗手로서 取하였던 복장이기도 하며.

國民公會議員들의 복장이기도 했다.

과격한 거리의 煽動家들 뿐 아니라 새로운 政治理念에 매력을 느끼거나, 혹은 舊제도의 生活樣式을 따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낀 사람들 또한 이 ‘市民服’을 착용했다. 실제로, 혁명初期나 恐怖政治기간에는 貴族風의 豪華스러운 의복에 粉뿌린 假髮을 쓰고 거리에 나서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한편, ‘새로운 것’이 중대한 意味를 갖는 젊은 멋쟁이들에게는 이 新式衣裳은 新式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모방할만한 가치가 있었다. 멋쟁이 남자들은 靑色 redingote에 白色襪을 두른 赤色 collar를 붙여 입었으며, 조끼나 외투의 단추나 훈장에는 革命的이거나 愛國的 意味를 지닌 motif를 새기거나 繡놓았다. 赤靑白 三色 줄무늬진 frockcoat와 caraco는 흔히 볼 수 있었으며 男女共히 三色 cockades와 리본으로 모자와 구두를 장식하였다. 女子들은 옷이나 작은 장식의 名稱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政治的 事件에서 따왔다. 예를 들면, 新式의 두었던 redingote를 ‘Nationale’, Cap은 ‘à la Bastille’, gown은 ‘à la Camille Française’, 허리띠는 ‘girdle à la victime’이라고 부르다가하면 모자에 붙이는 三色리본은 그 맨 모양에 따라 ‘à la patriote’나 ‘à la citoyenne’로 불렸다.⁴⁾

한편 Austria나 Prussia等地에 亡命하여 王政復古를 꿈꾸고 있던 舊貴族들의 의상은 물론 正統的인 宮廷服으로 habit, culottes, 조끼 및 假髮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복장은 現地人들로부터 傳統的 권위를 지닌 불란서 mode로서 인식, 모방되었다.

國內에 남아 革命에 반대하던 貴族들은 王政의 顛倒 및 동료들의 죽음을 哀悼하는 뜻에서 革命初期에는 黑色一色の 차림을 하였다(이 點은 革命直前に 第三身分代表議員들의 옷이 黑色이었던 點과 巧한 irony를 이룬다). 이들은 1791년頃에 이르러 白色 cravate를 높이 세우고, 모자에는 圓帽標를 달고, 백합꽃과 방패紋樣이 수놓인 gilet를 着用한 위에 黑色외투를 입고 粉뿌린 가발을 썼다. 革命自體에는 反感을 가지되,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利得이 있을 경우, 이를 마다하지 않던 少數의 貴族들은 黑色上下衣에 밝은 色 habit를 着用하였다.

이상과 같이 政治的 事件이 모든 社會活動-社交

·文化·經濟活動을 우선하는 환경에서 衣裳의 象徵機能은 오로지 政治性的 象徵으로 기울어졌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生命의 安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새로 爭取한 꿈과 같은 地位를 自視하는 의미에서 ‘市民’階級임을 誇張스럽게 상징하는 복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했을 뿐 아니라, 反革命家나 修正主義의 안목으로 혁명에 임했던 사람들도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政治的 所信이나 感情을 衣裳으로 나타내보임으로써 자신이 지닌 政治的 態度를 外界에 表現하고자 애썼다. 即, 이 革命期에는 다른 어떤 時代보다도 衣裳의 自我表現機能, 특히 政治的 自我의 衣裳을 통한 表出慾求가 상당히 高潮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 예로 공포정치기간 중 되풀이 上演된 Voltaire의 劇<씨저의 죽음>에서는 씨저의 살해자가 赤色 phrygian bonnet을 쓰고 出演했을 뿐 아니라 무대 한편에 놓여진 그의 동상 역시 bonnet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Roland 長官이 buckle 달린 신발에 약간만 粉을 뿌린 납작한 머리에 좀 낡은 외투를 입고 王앞에 나타났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그가 무슨 革命的 事件을 저지르기 위해 온 것 같이 느꼈었다는 例6等에서 服裝의 象徵性이 얼마나 重視되었는지, 또 象徵記號와 意味와의 관계가 얼마나 密着되어 있었는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以上에서 指摘한 바 衣裳의 政治的 自我의 規定 현상은 혁명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현저했으나, 정치적 상황이 混沌에서, 명백한 상태로 나아감에 따라 mode는 평정을 되찾는다. 공포정치末期에 이르러 이제서야 靑色 옷을 입는 者만이 공화당원이 라고 여기지는 않게 되고 jacobin黨에 대한 反動에서 sano-culottes 式의 상이 차차 인기를 잃어갔다.

以上的 衣裳의 政治的 自我의 小道具化 현상은 불란서 全域에 걸쳐 全階層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이것은 歷史形成에 비교적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며 老人이나 대다수의 小市民들들은 대체로 정치성과 무관하게 과거의 의상에 머물면서 새로운 복장으로 그 기능적 長點을 먼저 取하면서 서서히 변해갔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혁명지도자들中, 最高指揮者들은 극히

전통적 보수적인 의상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점도 또 하나의 irony 를 느끼게 한다. “이 젊은 변호사는 혁명가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정하게 머리에 粉을 칠했고 연한 靑色の 舊式上衣에 culottes 를 입었다.”⁷⁾라는 표현은 저 혁명이념의 狂信徒 Roberpierre 에 대한 묘사이다.

2. 男性服의 單純化, 機能化 傾向

불란서혁명을 계기로하여 男性服은 중요한 轉期를 맞이하는데 그것은 男性服이 色과 多樣性, 그리고 裝飾性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장중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의복의 목적은 出生·身分·富에 따른 인간의 等級을 매기고자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意圖는 13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頻發한 수많은 服飾禁制에 의해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그러나 身分制 撤廢에 가장 큰 目的을 두었던 불란서혁명은 身分에 따른 복장을 全面的으로 부정하였으며 1789년 혁명발발직후에 복식禁制令을 폐기하였다. 혁명 이전부터 農民계급이나 水夫들이 애용하였던 實用的이고 經濟的인 sans-culottes 式 복장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의 혁명이념으로 인하여 당시의 애호받는 복장이 되었다.

이러한 服飾形態의 變化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男性服 mode의 優位를 차지한 英國風服飾의 機能性 單純性과 연결되면서 從來의 男性服과는 性格을 달리하는 새로운 性向을 보이게 되었다. 혁명以前까지의 rococo 적인 밝고 명랑한 色調는 혁명기를 거치면서 被服管理와 金錢의 문제를 크게 提起하지 않는, 갑자기 需要가 增大한 毛織物 特有의 어둡고 鈍한 색조로 갈아얹게 된다. 실제로 男性服은 불란서 革命을 거치면서 多樣한 色과 裝飾性을 잃어버린以來, 20세기에 와서 peacock revolution 을 맞기까지 色相·明度·彩度に 있어 以前의 화려함에 近接한 적이 없다.

形態에 있어서도 革命前의 짧고 딱붙는 culottes 는 차차 길어져서 무릎에서 종아리 중간까지, 다시 발목까지 길어지면서 바지통도 차차 넓어져서 culottes 와 pantalon 의 구별이 흐려지고 ‘pantalon’ 이란 用語는 서서히 바지의 어떤 특수형태에 대한 別稱이 아니라 바지에 대한 總稱에 가까워진다. 몸에 꼭붙는 habit 는 redingote 나 frockcoat

등의 여유가 더 들어가고 덜 曲線진 형태로 변하는 동시에 허리 아래로 내려왔던 화려한 刺繡가 놓인 조끼도 길이가 허리선으로 올라가면서 품이 넉넉해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織物도 絹이나 Velvet 등에서 實用的인 綿織이나 毛織으로 主種이 바뀐다. 織物의 變化는 思想的背景뿐만 아니라 flying shuttle 의 사용으로 因한 大量生産과 Oberkempf 에 依한 cylinder 를 사용한 특수·printing 의 개발, 毛織 생산技術의 발달로 인한 品質의 고급화와 직물종류의 多樣化 등의 技術的原因과, 執政政府和 統領政府에 의한 保護關稅制度 및 纖維産業育成策, 大陸封鎖의 결과로 얻은 內國産業의 再起 등의 産業構造變化가 크게 作用한 것은 물론이다.

即, 男性服 形態의 機能化, 中間色化, 素材의 實用性化는 18세기 産業革命의 本결과 함께 英國 mode 의 영향으로 인하여 충분히 그 變化의 소지를 굳히고 있었고, 農民 및 勞動者 계급은 이미 이와 유사한 복장으로 數世紀를 生活해왔으나, 이러한 추세가 支配層에까지 파급되고 以後 流行의 行方을 題示하기에 이르는데는 革命으로 인하여 再構成된 社會構造에 기인하는바 크다할 것이다.

以上の 論點은, “만일 불란서 貴族이(혁명의 위협을 견디고) 살아남아 bourgeoisie 와의 鬪爭을 계속하고 싶었다면, 그는 우선 當時의 勝者群에 편입해서 살아남는 것이 有利했다. 이것은 即, 돈많은 bourgeoisie 의 服飾을 取하여 살아남아야 하는 것을 뜻했다.”⁸⁾라는 글에서 意味하는 바이기도 하다. 또한 1790年の Fashion 誌, Cabinet des Modes 의 “요사이 Mode 의 특징은 流行變化의 加速化다. 이것은 以前에는 身分의 差異가 복식에 多樣性을 부여했으나 이제는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區別시키는 것은 새로운 流行의 재빠른 追從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⁹⁾라는 서술에서 服飾의 階級標識의 機能이 弱화하자 衣裳은 비교적 單純해지고, 이 單純한 衣裳을 통한 個人的 個性의 自我表現이 새로운 문제로 提起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服飾의 單純化, 裝飾性排摺의 性向이 불려온 mode 의 民主化는 革命이후에 갑자기 두각을 드러낸 불란서 民俗服의¹⁰⁾ 強調現象과도 관련을 가진 것 같다. 즉, 중래 服飾表現에 있어서의 上下

身分區別이 빚어내는 從的區分이 微弱해지자 복식은 橫的 多樣性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종래부터 있어오던 地域別 差異를 強調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最初의 民俗衣裳展示會는 Napoleon 集權下의 第一帝政期에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傾向의 또 하나의 현상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點은 兒童服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다. 일찍이 成人服飾의 miniature로 定省한以來, 아이들의 身體發育과 活動範圍를 제한하였던 兒童服의 不合理性에 비교적 無心하였던 어른들은 Rousseau의 兒童教育에 對한 提言에 자극을 받고 成人服의 單純化를 눈 앞에 목격하면서 서서히 兒童의 고층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當時의 La Maitresse des Maison Élégantes라는 책에서 “어른의 體型에 대한 지식만으로 또 어른의 취미에 따라 아이들의 옷을 입히는 것은 洗練되지 못한 惡趣味”임을 강조하는 教育的 論調를 띤 記事에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自覺이 실제로 兒童服에 충분히 反映되기에 20세기까지 이르는 아직도 긴 세월을 앞두고 있었다.

3. Uniform 愛好性向

1793년 봄, 共和派 美術家들은 열린 토론회를 벌였는데, 그 論題는 “새로운 服裝을 創造함으로써 새로운 精神을 創造하자”는 것이었다. 畫家 Lesueur는 현재 입혀지고 있는 복장은 ‘自由市民’에게 어울리지 않으므로 완전히 새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는가 하면, 또 한사람의 畫家 Sergent는 平等의 이름으로 地上에는 한 종류의 衣裳만 존재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彫刻家 Espercieux는 greek helmet과 Chlamys가 새 共和國의 最適의 의상이라고 했다.¹²⁾

1794년 5월에는 公安委員會가 當代의 有名한 共和派 畫家 David에게 新政府의 理念과 共和國의 生活樣式에 알맞는 國民服을 디자인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이것을 立法議會에 올려 審議, 批准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David는 무릎까지 닿는 tunic에 꼭 붙는 긴 바지, 목짧은 boots에 갓털 달린 둥근 모자, 넓은 천으로 된 belt와 어깨에 얹처럼 두른 의두를 제시하였다. 마치 로

마의 tunic에 그리스의 chlamys를 混合한 것 같은 이 복장은 David 門下의 學生들이나 Ecole de Mars의 士官生徒들이 着用한데 그쳤을뿐, 전혀 一般化되지 못했다.¹³⁾

1795년의 執政政府는 公務員服의 제정에 열성을 쏟아서, 500人會員·元老院議員과 公務員들, 심지어는 植民地에 派遣간 公務員들까지 모두 새로운 職位를 표시하는 새 公務員服을 착용하였다. 이러한 制服에 대한 애착은 로마에 居住하고 있던 불란서 畫家들에게도 波及되어 本國에 자기들에게도 制服을 指定해줄기를 요청하기도 한다.

以上과 같은 一連의 試圖에서 드러난 新政府의 制服에의 執念은, 그것이 비록 成功하지도 못하였고, 또 政府가 強압적으로 着用시키려는 試圖보다는 國民들이 自發적으로 呼應할 수 있는 하나의 理想的 服裝을 提示하려는데 있었으나, 어쨌든 集權層이 單一한 衣裳을 통해 國民精神의 總和를 얻어 보고자했던, 服飾史上 상당히 독특한 현상을 보여 준다.

이 현상은 불란서國民의 새로운 地位-citoyen, citoyenne-에 대한 自稅意圖를 表現하는 것이었으며, 이들은 萬人에게 同一한 ‘하나의 身分’에 대한 表象을 ‘한개의 의상’으로 나타내고 이 唯一無二한 衣裳 속에서 一體感을 느끼고 所屬感과 그것이 保障하는바 권리를 누리고자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制服에 대한 論議가 政府의 次元에서 거론되었으려 그 年度가 恐怖政治末期와 그 以後에 걸쳐있음을 볼 때 集權層의 制服에 대한 執念은 分散되는 國民意思에 대한 憂慮를 反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輿論의 多樣化를 止揚하고 單細胞의 統一性을 얻기위한 수단의 하나로 衣裳의 單一化를 추구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다.

4. 理想鄉의 表象으로서의 衣裳

이와 같은 統一性에의 欲求는 그 典型을 古代, 특히 로마共和國에서 찾았다. 帝政以前의 民主의 로마共和國은 革命家들에 의해 地上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대로 美化되고, 이에따라 政府의 制度, 日曆, 家具 및 建築樣式을 로마式으로 꾸미는 것

은 물론, 심지어는 아이들의 이름을 브르투스나 카토스·그라쿠스 등으로 지었으며 劇場에서는 라신스와 코르네이유대신 로마의 英雄들을 誇張스럽게 떠받드는 劇들을 公演하였다.¹⁴⁾

衣生活 또한 열정적으로 古代로마나 그리스의 樣式을 추구하였다. 畫家 David를 선두로 한 男性服의 반복된 古典化 試圖는 兩時代의 生活樣式의 相異性, 兩國家의 自然條件의 相違, 옷자체의 거추장스러움과 人體的인 느낌으로 因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frockcoat나 pantalon에 淘汰되고 말았으나, 女性服은 千年以上을 뛰어넘는 歷史의 週及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나 로마가 지닌 불란서와의 自然條件과의 莫大한 隔差에도 불구하고 'Fair Sex'特有的 靈感과 忍耐力으로 그리고 혁명以前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던 robe alngaise의 자연스러운 style에서 그 실마리를 얻어 불란서에 로마服 혹은 類似로마服을 再生시키기에 成功한다. 이들은 panier의 거추장스러움을 벗어나 가벼운 綉의 drape 性을 강조하고, 허리선을 가슴 바로 밑까지 끌어올리고, 머리는 종래의 假髮이나 거대한 모자대신 짧고 자연스러운 curl을 늘어뜨리거나, à la Titus, à la Brutus 등의 로마 英雄들의 假髮形을 본딴, 극도로 짧고 단순한 形態를 즐기고 chignon, 金·銀織 hair band, caul, 타조털, diadem 등의 古典의 머리裝飾도 자주 使用하였다. 그리스의 himation이나 로마의 pallar의 雰圍氣를 내기 위해 shawl을 즐겨 착용하여 이집트나 인도產 고급 shawl은 羨望의 對象이 되고 paisley shawl의 內國生産을 일으키게 된다. 굵달린 신발은 샌달類로 바뀌어 맨발에 보석 발가락지를 끼고 水木 사이를 걷던 古代神話 속의 女神들을 흉내내어 가볍게 걷도록 연습하였다. 즉, 衣生活의 美的 要素가 그들의 生活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日常生活의 雜事에 몹소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던, 또 氣候와 衣服의 커다란 齟齬까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一羣의 上流層 女性들에 의해 執政과 帝政期의 女性服은 想像力이 許容하는 限 古典의 服飾樣式에 가까이 다가갔다. 아마도 服飾史上 한 時代의 衣裳形態가 뚜렷한 模倣意志를 지니고 특정한 前時代에 이토록 修正없이 近接해간 例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5. 軍服의 影響

불란서의 美國獨立戰爭參與, Napoleon의 遠征, 大陸體系의 戰爭에서의 불란서의 優位性 등은 불란서의 軍人을 매력적인 存在로 만들었다. 屬領의 擴張과 함께 불란서 國民의 民族主義는 高潮되어 갔으며, Napoleon의 集權은 실질적으로 軍出身의 上流階級化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理由로 하여 軍服은 對外的으로는 불란서 國民의 矜持를 일깨워 주었고, 對內的으로는 權力集團에 所屬됨을 의미했으므로 軍服이 統領政府 및 第一帝政期의 Fashion에 影響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외투어깨에 軍人의 그것을 흉내낸 肩章을 붙이는 가하면, helmet형의 모자가 유행하고, 軍服과 類似한 色과 形態의 redingote가 많이 입혀졌다. 刺繡의 motif나 braid의 形態를 軍服에서 따오는 등, 軍服의 影響은 大部分이 部分的 裝飾에 限했으나 이러한 현상은 M. Percier와 Fontaine가 Napoleon I세를 위해 디자인한 公服, 즉 15년간이나 그 命脈을 끊기었다가 되살아난 宮中禮服이 正裝軍服의 형태를 取하고 있었으며 高宮用 公服에 딸린 모자가 18세기 Saint-Espirit 騎士들의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었다는 점¹⁵⁾과 관련시켜 볼 때 無視할 수 없는 특징의 하나이다.

6. 偏理的 類廢性

한 社會가 큰 戰爭이나 社會改革으로 인해 派生되었던 社會雰圍氣의 勁直性, 恐怖感에서 벗어나면 언젠가 지나친 嚴格한, 節制, 抑壓에 대한 反動이 뒤따랐다. 一次大戰後의 garçonnette들의 gilded age가 그러하였고 二次大戰後의 Dior의 New Look은 그러한 社會의 雰圍氣를 잘 捕捉하여 成功했던 style로 너무 有名하다.

恐怖政治의 음산함이 물러가고 Napoleon의 登場과 때를 같이하여 불란서의 服飾에는 集權層을 中心으로한 自由奔放한 화려함이 古典主義의 취향을 지니고 나타났다. 이 방만한 분위기는 오랫동안 되돌아온 帝政이 주는 화려함과, Napoleon의 經濟活性化를 위한 奢侈의 獎勵 및 파히 Alexander大王의 野心에 比肩할만한 Napoleon의 世界制霸의 野望을 그 背景으로 하고 있다.

당시 유행하던 復古的인 mode 는 形態나 色에 있어 극히 단순했으므로, 날마다 새로운 것을 追求하는 Fashion 의 生理는 量的 誇張, 즉 크기나 길이의 誇張으로 흐르거나, 옷을 입는 方式의 變化로서 나타났다. 즉 Dress 의 길이가 대담하게 짧아지거나 décolletage 가 깊어지거나, 혹은 옷의 枚數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옷을 입는 方法에 있어 극히 단순하게 함으로써 극도의 洗練性을 띄거나 하는 등이었다. 季節에 관계없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muslin 한 겹으로 된 chemise dress 는 몸의 曲線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고, 속에 입은 양말대님이나 內衣의 색깔을 흰히 비추었다. 裸體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살色 內衣가 유행되고 심지어는 전혀 內衣를 입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당시의 한 衣裳批評家는 “가장 멋있는 옷은 裸體自體다”라는 말을 公共然히 하기에 이르렀으며, 심지어는 옷이 몸에 더욱 密着하도록 하기위해 옷을 물에 추가거나 덜 마른채로 입어서 肺炎에 걸려 生命을 잃는 일도 있었다 한다. Napoleon 도 參席한 Opéra 座에서의 한 公式公演에서는 당시 社交界의 女王이었던 Mme Tallien 이 무릎 길이의 짧은 Chemise dress 에 맨발에 샌달을 신은 모습으로 나타났다¹⁶⁾고 하니 당시 衣裳態度의 분명한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러한 氛圍氣 속에서 統領 및 帝政期는 上流階級の 婚外不貞으로 惡名 높은 時期가 되었으며, 춤과 社交의 호화로운 生活이 되살아나 1800년 2월에는 Opera Ball 이 復活되고 1801년에는 市街에서의 假面舞蹈會가 허용되었다. 女子들은 衣裳의 大膽함 뿐만 아니라 짧고 男性的인 髮形을 즐겼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 사회적 분위기의 類似性과 더불어 1920년 代의 땡고와, shingle 이나 bob hairstyle 을 聯想시키는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물론 舊貴族이나, 本質적으로 保守의 성향을 지닌 bourgeoisie 및 小市民들은 敬遠하는 바였으며, 그들은 이러한 復古的 趣味·軍人的 要素·宮中的 要素의 野合을 半은 嫉妬心에서 半은 嫉妬心으로 바라보았고 Napoleon 이 Josephine 과 離婚한 以後, 그로부터 완전히 떠나갔다. 商人들 또한 1806年 大陸封鎖以後 정치적 關係에서 손을 떼었으므로 이러한 의상의 流行은

Napoleon 이 만들어 내었던 新興貴族들과 그 周邊人物에 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과는 性格을 달리하면서도 그들의 衣裳이 주는 頹廢的 效果에 있어서는 결코 뒤떨어짐이 없었던 무리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衣裳의 着用 方法을 극히 어수선하고 無秩序하게 함으로서 애써 멋에 대한 無關心을 나타내 보이려 했다. 即 Incroyables 과 Merveilleuses 群들이 이들로 이들은 개의 畸形態로 지저분하게 기른 머리를 입술을 덮도록 들들말아 높이 세운 cravat 위로 늘어뜨리고 거대한 reveire 와 collar 를 단 외투를 여미지 않고 풀어놓은채, 단추가 주렁주렁 달린 구겨진 바지위로 雜多한 색깔의 脚絆을 치고 갈매기 모양으로 입이 벌어진 구두를 홀려내리게 신고는 短杖대신 부러진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며 優雅한 대신 험클어진 옷, 洗練된 端雅함대신 뒤죽박죽의 게으름과 무관심을 演出해보이려 애를 썼다. 이들 Incroyables 群의 女性變形이 할 수 있는 Merveilleuses 들은 앞챙이 지나치게 넓은 bonnet, 흐트러진 curl, train 이 땅에 질질 끌리는 긴 chemise dress 와 입술을 덮는 높은 cravat 에 긴 장갑이나 거대한 shawl 을 늘어뜨리고는 帝政이 表現하는바 整形性, 세련된 單純性, 高尚한 優雅함을 하나의 俗物根性으로 看做, 輕蔑하고, 服裝에의 無關心, 無節制, 無秩序, 非整形性, 混沌, 懶怠함, 安逸性을 고집하였다.

統領 및 帝政期 衣裳態度에 나타난 倫理的 頹廢性은 新興 貴族의 出現과 함께 나타났으며, 이것은 社會氛圍氣의 勁直期에서 弛緩期로 진행되는 시대적 背景 및 새로운 經濟活性化政策의 庇護를 받으며, 세련된 멋쟁이들의 極度로 大膽한 單純性으로 表現되거나 少數의 反俗物主義群의 反整形性 無秩序·無關心의 愛好라는 形態로 나타났다.

Ⅲ. 結論과 提言

불란서 革命과 같은 政治·社會的 變革은 必然的으로 生活樣式의 變化를 가져오고 衣生活의 變化 또한 不可避하게 만든다. 本稿에서는 불란서 革命의 出發에서 帝政期까지의 衣裳態度에 나타난 여러가지 현상을 貫徹하는 몇가지 特性을 指摘하고 그것을 時代的 背景과 연관시켜 설명해보자하였다.

筆者는 그 特徵을 1. 政治的 badge, 즉 정치적 自我 規定의 小道具로서의 衣裳 2. 男性服의 單純化, 機能化 현상, 3. Uniform 愛好性向, 4. Utopia 的生活樣式의 模倣媒體로서의 衣裳, 5. 軍服의 影響 6. 頹廢의 倫理性이라고 指摘하고 그 特徵에 대한 背景이나 近·遠因으로서 階級概念의 解體, 市民階級の 誕生, 急進의 革命에 따른 恐怖와 危險, 國民總和意志, 產業革命의 餘波와 經濟活性化 政策, 軍出身集權, 帝政에의 回歸, 古典主義, 恐怖와 勁直期의 終息에서 오는 弛緩感 등을 들었다.

筆者는 여기에서 지적한 以上の 特性이 비교적 安定된 社會의 衣裳態度에도 反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불란서 革命을 除外한 餘他の 社會變動期에서의 衣裳特徵과 그 脈絡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 特徵들이 社會的 混亂期에 反復되거나 部分的으로 一般化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바이며 이러한 觀點에서 보다 仔細한 資料를 갖춘 연구가 있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Bibliography

1. "Revolution, Political," *Encyclopedia Britannica*, 1979, pp. 787-791.
2. Sir Wraxall, "Historical and Posthumous Memoirs,"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by Waugh, Norah, London, Faber and Faber, Ltd., 1972, p. 110.
3. Laver, James, *The Concise History of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148.
4. Beaulieu, Michèle, *Le Costume Moderne et Contemporain*, 5th ed., Vendôm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85.
5. Kybalová, Ludmila, Olga Herbenová, and Milena Lamarová, *Encyclopédie Illustrée du Costume et de la Mode*, Prague, Gründ, 1976.
6. Boucher, François, *20, 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335.
7. Brinton, Crane, John B. Christopher and Robert L. Wolf, *A History of Civilization*, vol. 2, 2nd ed., Trans. B.W. Yang, S.H. Min, B.H. Lee and S.K. Kim, Seoul, Ulymoonhwasa, p.492.
8. Kybalova, p.230.
9. Boucher, p. 341.
10. Ibid., p. 335.
11. Kybalova, p.581.
12. Boucher, p.342.
13. Beaulieu, p. 84.
14. Brinton, p. 498.
15. Boucher, p.350.
16. Ibid., p. 345.